‘선거 파행’ 소상공인聯, 일단 봉합… ‘2파전’ 양상

LG하우시스, 주총서 민경집 신임대표 선임

LG하우시스가 지난 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민경집 부사장(**사진**)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경집 신임 대표는 1989년 LG화학 기술연구원으로 입사한 이후 연구개발, 기획, 전략 등의 업무를 두루 거친후 2009년 당시엔 새로 출범한 LG하우시스의 연구소장을 맡아 건축자재, 자동차부품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특히 ▲옥수수 원료의 식물성 수지(PLA)를 적용한 바닥재·벽지 세계 최초 개발 ▲로이유리와 PF 단열재 등 에너지세이빙 분야 신사업 육성 ▲자동차원단 및 경량화부품 등 자동차소재부품 사업 경쟁력 강화 등에 앞장서며 LG하우시스의 지속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신임 대표는 이같은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LG하우시스가 프리미엄 건축자재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과 자동차소재부품의 성과 가속, 해외매출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LG하우시스는 또 이날 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LG 하현회 부회장을 재선임했다. 또 지난해 재무제표 내역을 승인받고 보통주 1800원, 우선주 1850원의 배당도 확정했다. /김승호 기자

KFME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 소상공인연합회

소송·정치권 개입설로 ‘내홍’ 최승재·이봉승 후보등록 마감 30일 총회서 회장 선거 재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봉승 귀금속가공업(연)회장

한 차례 무산됐던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게됐다.

현 최승재 회장과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의 ‘2파전’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설’이 불거지고 있지만 의혹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본지 2월21일자 3면 참조〉**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였던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후보 등록에 최승재 현 회장과 이봉승 귀금속조합연합회장이 지원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10일부터 선거운동을 거쳐 이달 30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격돌하게 된다.

당초 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당시 차기 회장 후보엔 현 최승재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었다.

하지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3개 단체가 임원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선거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총회가 이달 말로 연기됐었다.

연합회측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총회도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아울러 공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연합회 선거 업무 전반을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를 현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총괄해 관리하고 최 회장은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까지 시급한 현안 등에 대해서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키로 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최 회장과 경선을 치르게 될 이봉승 회장은 귀금속조합연합회장으로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모임을 별도로 만들어 정치권에 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한 단체장 중 한 명이다.

귀금속조합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정상화추진위’는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연합회를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20여개 단체 중에선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 모씨도 이름을 올렸다. 전 모씨는 정상화추진위가 발송한 공문의 수신처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모씨와 같은 인물이다.

민간단체의 회장 선거에 정치권 입김이 들어갔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추진위 발송 공문에 이름이 포함된 한 단체장은 “전 모씨를 위하는 모임에 참석하러 갔다가 이름을 썼는데 그런 공문에 (명단이)올라가게 됐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단들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연합회장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미애 대표에게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측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 법정 경제단체로 ‘소상공인 정책허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새로 치러지는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회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6500가구 공급

자격요건 조정…지원대상·금액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년도 공급 물량(5500가구)보다 1000가구가 늘어난 총 6500가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3704가구, 5대 광역시가 1330가구, 기타지역 1466가구 등 총 6500가구 규모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조정하고 지원가능 금액도 대폭 증액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7’을 찾은 관람객들의 시연 공간에서 각종 게임들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WHO “게임중독 장애, 질병으로 분류해야” 국내외 학계 반발… “게임포비아서 비롯”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으로 인한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반발하는 학계 전문가들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권위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사회 과학자, 각국 연구센터 및 대학 교수진 등 관련 전문가 36명이 WHO의 게임 장애 항목 신설 계획에 반대할 뜻을 나타냈다.

게임 장애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어렵고,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일 헝가리에서 발간되는 임상심리학 분야 오픈 액세스 학술지 ‘행동 중독 저널’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사회과학 등 게임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36명이 WHO의 방침에 반대하는 논문을 투고했으며 게재가 확정됐다.

WHO는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서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향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WHO의 지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진단을 지지하는 연구진 간에도 게임 장애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 ▲기존 근거들이 빈약하다는 점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질환을 공식화하는 것은 광범위한 범위의 비임상적인 사회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브라질,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18개국) 등의 게임산업 단체들은 WHO의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국내에서는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게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게임을 질병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조 발제로 나선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WHO가 제시한 게임 중독의 진단 기준에도 내성과 금단 증상이 빠져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각국 전문가가 내놓은 논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게임포비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적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의 교육적, 치료적, 레크레이션적 가치가 이미 정립돼 있고, 디지털 사회에서 게임은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주요 능력과 기술,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죠스떡볶이, 10주년 기념 창업 지원 프로모션 진행

죠스푸드의 죠스떡볶이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규 가맹점주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죠스떡볶이는 신규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안정적인 창업을 돕고자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죠스떡볶이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는 창업 지원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인테리어 시공은 점주가 원할 경우 자체 시공도 가능하다.

또 고매출 가능성이 있는 상권 분석 및 선정과 점주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죠스떡볶이 관계자는 “죠스떡볶이는 크게 유행을 타지 않는 분식이라는 아이템과 비교적 저렴한 창업자금으로 예비 창업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창업 프로모션이 좋은 기회가 돼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청호나이스 “6방향에서 빠르고 강력하게 흡입”

‘청호 6Way 멀티순환 공기청정기’

청호나이스는 더블 팬으로 강력하게 흡입하고 6개의 토출구를 통해 실내 공기를 고르고 빠르게 청정 순환시켜주는 ‘청호 6Way 멀티순환 공기청정기’(**사진**)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강력한 청정 성능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4단계의 청정도 디스플레이 ▲전기요금 부담 없는 에너지 1등급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 환경에 맞는 스탠드·벽걸이형 선택 가능 등이 특징이다.

특히 2개의 팬과 2개의 BLDC 인버터 모터, 2개의 필터세트로 구성돼 뛰어난 흡입·청정 기능을 자랑한다. 전면의 더블 팬으로 강력하게 빨아들인 공기를 더블 필터로 걸러낸 후 6방향의 토출구를 통해 내 보냄으로써 실내공기를 골고루 빠르게 순환시킨다.

사용편리성을 위해 멀리서도 조작이 가능하게 리모콘도 탑재했다. 취침 모드 시엔 청정 LED 디스플레이를 끄고 소음을 최소화해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배려했다. 2개월 또는 3개월 마다 필터교체 등 위생클리닝 서비스를 진행하며 3개월 방문 서비스의 경우 월 렌탈료는 4만1900원이다. /김승호 기자